

## 한국 다문화부부의 부부적응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 : 구조적가족치료를 중심으로

### Family Counseling for Marit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Couple in Korea: Focused on Structural Family Therapy

전혜성<sup>1</sup>

Hyeseong Jeon<sup>1</sup>

요 약

본 연구는 장기화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다문화 부부의 부부적응을 위해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을 적용하여 진행한 사례연구이다. 부부는 둘 간의 정서적 갈등, 상호비난,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여, 상호소통이 적은 엄격한 가족 경계선, 자녀훈육의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역기능적인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연구대상자 부부를 위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 기반을 둔 개별화된 부부상담을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대략 매 회당 90분으로 총 5회를 진행하였다. 상담 개입의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치료초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확인하였고, 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의 상담내용을 녹취 및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양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의 점수 변화도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구조적가족치료를 기반한 가족상담을 통해 부부체계 내 유대감 및 갈등조정 능력, 시어머니-부부 간의 명확한 경계선 형성, 자녀에 대한 양육적 권위 등이 증진되었고 결혼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부부의 부부적응 증진을 위해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에 기반한 가족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다문화, 부부, 부부적응, 가족상담, 구조적가족치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use and results of family counseling based on Structural family therapy for a 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ing complex family problems such as emotional conflicts and mutual criticism, excessive involvement of the mother-in-law, rigid family boundaries with little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difficulties in child discipline. In this study, five 90-minute sessions were carried out with the couple. For qualitative evalu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a process-and-change analysis of the transcript and post-session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the researcher performed a test of marriage satisfaction test to identify the before-and-after differences of counseling. Couples had strengthened the couple system and clearer boundaries and hierarchy. Also,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conclusion, family counseling based on Structural family therapy has shown to be effective for the marit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 : multicultural, couple, marital adjustment, family counseling, Structural family therapy

<sup>1</sup> Dept.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Korea [Professor]  
email: hsjeon@dankook.ac.kr

\* 본 연구는 2019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Received(October 31, 2019), Revised(November 25, 2019), Accepted(December 9, 2019)

## 1.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의 결혼이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은 전혀 새롭지 않다. 이미 15년 전인 2004년 이후 국제결혼은 10% 이상으로 유지되어서, 국내 전체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중은 10쌍 중 1쌍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비율은 결혼 건수 100 쌍 중 국제결혼 부부가 1쌍에 불과했던 1990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된 수치로, 우리나라가 급속한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동되어감을 시사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출생 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이혼한 적이 있는 자로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면서 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사실이 있으면, 그 외국인과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은 급진적으로 확산된 동시에 높은 이혼율도 보여준다. 국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가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2], 대략 이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의 부부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부부가 사용해온 모국어가 다르므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 부부갈등, 시댁과의 갈등,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부부의 부적응의 시작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문화적 차이’라는 일차적인 조건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차적인 조건이 다문화부부로 하여금 비 다문화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부부갈등, 양육 문제, 시댁 및 확대가족의 관여, 사회적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3]. 또한 많은 다문화 부부의 경우, 잦은 갈등에 대해 적절한 해결과정 없이 갈등경험이 누적되기 쉽다. 실제로 다문화 부부가 상호 갈등을 겪은 후 부부싸움을 하는 방식은 말다툼을 하거나 언어의 제한으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피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갖는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못하는 것이고 설령 부부싸움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도 이후에 대체로 별다른 화해나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1]. 이처럼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르고 상호 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하는데 많은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다문화부부는 내국인 부부에 비해 쉽게 갈등이 누적되거나 감정의 대립을 자주 경험하며 이것이 심하면 신체적인 폭력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4].

이와 같은 다문화부부의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부부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몇몇의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상담을 시도해왔다. 이 때 적용된 주요 가족상담 모델에는 가트맨 부부치료, 해결중심 상담, 정서중심치료 등이 주를 이루었고, 상담 결과로 다문화 부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호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5].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인 부인

이 한국 사회에 적응 수준이 낮을 수 있고 언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는 이론적 토대를 갖춘 상담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상담에서는 부인들이 갖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언어적 의존도를 낮추는 치료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을 주목할 수 있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전체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 및 가족의 구조변형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 갈등과 혼란을 감소시켜서, 다른 가족상담 모델에서 부부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영역들을 축소 또는 감소시켜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에게 구조적 가족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건강한 하위체계, 경계선, 위계질사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구조적 가족치료는 부모세대와 분화된 건강한 부부하위체계,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도 개인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부간의 명확한 경계선, 다문화부부가 부모로서 영향력을 확보하여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적 권위의 확보를 돕는 위계질서 등을 확보하는데 이론적 준거와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및 부부적응 증진을 위하여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에 기반한 가족상담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부부상담의 이론적 준거

### 2.1 구조적 가족치료 개념

구조적 가족치료는 개인보다는 개인이 속한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개입목표는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수정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상담사는 가족에 합류하여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고 위계질서를 형성하며 각 하위체계의 고유의 기능을 강화한다.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고 가족의 문제 및 증상해결은 이차적 또는 부차적 목표로 제시하는데, 사실상 가족구조의 변화와 문제해결은 불가분한 관계이다. 구조적 가족치료 상담사는 가족체계에서 지도자로서 영향을 미치고 구조의 변형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위해 매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치료과정과 치료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 [8].

### 2.2 구조적 가족치료의 개입과정

치료를 위한 개입과정은 가족에 합류하기, 가족구조 사정, 가족 재구조화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정인 ‘가족에 합류하기’에서 합류는 ‘상담사가 가족과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상담적

관계형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 초기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전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구조적 가족치료 상담사는 치료초기부터 상당한 지도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는데, 가족상담 전체를 진행해 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한다.

가족체계에 합류한 후, 상담사는 가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구조의 역기능을 확인한다. 이때 가족의 경계선, 위계질서, 하위체계 기능을 사정한다. 가족구조의 사정단계에서 상담사는 가족들이 진술하는 문제를 재명명하여 가족들에게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행동의 변화를 시도한다. 보통 가족은 문제를 개인의 문제 및 부적응으로 혹은 외부 상황으로 정의하지만, 구조적 가족상담사는 가족문제를 가족 구조의 역기능으로 사정한다. 상담사는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 구조의 역기능이 문제임을 자각하게 하여 가족 내 잠재된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새롭게 활성화시킨다. 가족구조에 대한 가족의 인식은 기존의 상호작용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상호작용 형태를 새롭게 받아들일 동기를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재구조화를 위해 가족 위계질서, 하위체계, 경계선의 적절한 확립을 시도한다. 먼저, 안정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들에게는 보다 큰 책임과 의사결정권이 기대되고 부모와 자녀의 책임수준과 권한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는다. 경계선의 재조정에 있어서, 혼돈된 가족의 목표는 각 개인을 개별화하고 하위체계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하위체계가 서로 분화하도록 돕는다. 반면 엄격한 가족은 경계를 보다 느슨하게 하고 융통성이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명확한 경계선을 갖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체계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할 때는 부부체계, 부모체계, 부모 자녀체계, 형제체계 등의 각 하위체계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9].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자

연구참여자 부부는 결혼 9년차 부부로 부인의 국적이 베트남이고 남편은 한국인인 다문화가족이다. 첫 회 상담에서 상담사는 본 상담실이 대학연구기관이자 임상상담 기관임을 설명하고, 상담사는 상담과 연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연구윤리기준 준수를 위해 개인적 사항 및 상담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료의 익명처리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고지하였다. 내담자 부부가 동의하였다.

#### 3.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가족치료에 기반한 가족상담을 통하여 다문화 부부의 부부체계, 경계선, 위계는 변화하는가?

둘째, 구조적가족치료에 기반한 가족상담을 통하여 다문화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변화하는가?

### 3.3 조사설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가족을 한단위로 규정하고 분석하는 사례연구로 부부갈등을 겪는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에 준거하여 가족상담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부적응의 변화 측정을 위해,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병행하였다. 질적 측정을 위해서는 회기마다의 내용을 녹취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하였다. 양적측정을 위해서 1회 가족상담 시작 시와 5회 종결 시에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각 부부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상담과정

### 4.1 사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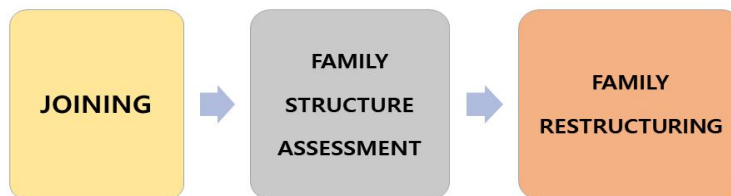
본 사례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5회로 진행되었다. 매회 1회, 규칙적으로 90분 상담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가족은 남편(45세, 전문대졸), 부인(29세, 고졸), 딸(8세), 그리고 아들(6세)이다. 시어머니(75세)는 아들네 집과 도보 1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2남 1녀 중 차남이고 부인은 1남 3녀 중 장녀이다. 남편은 비교적 직장생활은 꾸준히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부인도 일하기를 원한다. 남편은 술을 자주 먹으며 부인에게 기본 일상적인 얘기 외에는 정서적 교류를 시도하지 않고, 종종 “네가 뭘 아냐”라는 식으로 부인을 무시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며 소리를 치기도 한다. 자녀들과도 별 대화 없는 무뎠직한 아버지이다.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부부는 서로 소개를 받았고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잘 사는 나라로 믿었던 한국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차 부인과의 대화를 쉽게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자주 얘기를 나누며 중요한 결정을 시어머니에게 의존하였다. 부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한국어와 요리를 배우고 의존도 많이 하는 등 도움을 받았으나, 점차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지고 시어머니의 권한이 커지면서 시어머니와 접촉을 줄이고 거리를 두며 회피하고 싶어졌다. 최근 시어머니는 고혈압 및 관절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자신의 방문을 싫어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손주들이 잘 못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다. 최근 부인은 둘째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베트남

남 식당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며 약간의 돈도 벌고 베트남 사람들과도 만나서 정서적 욕구도 해소하고 있다. 자녀들은 음주 후 큰소리를 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할머니가 엄마를 야단치는 것이 싫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자녀들도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주로 집 안에서 게임을 하며 자기 멋대로 지낸다. 장녀는 가끔 “집 나가고 싶다, 우리 집이 싫다” 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차남은 6세인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나이에 비해 어휘 및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편이다. 부인은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엄마 역할에 대한 무능력감,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 4.2 부부상담의 과정별 분석

전체 5회기 상담 중, 1~2회기 부부와의 관계형성, 문제확인, 사례개념화 과정을 통하여, 상담목표 및 개입방향성을 설정하였다. 2회부터 4회까지는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5회기에는 상담의 전 과정 검토를 통하여, 상담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결감정을 공유하였다([그림 1], [표 1] 참조).



[그림 1] 구조적가족치료 개입과정

[Fig. 1] The Intervention Process of Structural Family Therapy

[표 1] 상담 진행과정

[Table 1] The progress of family counseling

classification	session	content
Joining	1	The counselor accepted and respected the family as they were and led the family as a leader and tried to adapt within the family.
Family structure assessment	2	The counselor reorganized the causes and phenomena of family problems into the dysfunction of the family structure.
Family restructuring	3~4	Changes were attempted in the family sub-system, boundaries, hierarchy, etc. Through this family counselling, the couple subsystem was strengthened and the family conflicts were reduced.
Termination	5	The goal of family counseling presented by the family has been achieved at a considerable level. Counseling was terminated by agreement.

#### 4.2.1 가족체계에 합류 및 관계형성(1회)

- 상담관계 형성: 부인이 한국에 온지 9년차여서 한국어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민감한 뉘앙스 및 어휘 선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담사는 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격려하고 부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지도자로서 가족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부부와 관계형성을 하며 가족 내 적응을 시도하였다.

- 호소문제 확인: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부여하되,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엄마 역할에 대한 무능력감, 경제적 스트레스, 시어머니의 간섭 등을 호소문제로 제시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엄마 역할도 잘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대화를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 4.2.2 가족구조 확인 및 부부의 가족구조 역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2회~3회)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담사는 부부에게 그들이 겪는 문제가 어떻게 가족구조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 하위체계, 위계, 경계선 등의 개념에 기반하여 쉽게 설명하고 공유하였다.

##### 1) 하위체계의 기능 약화

- 부부하위체계: 언어와 문화에 차이를 겪는 부부는 의사소통 및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남편은 부부 갈등에 대해 협상하고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인을 비난하고 화를 내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은 음주 후 주사로 부부 간 정서적 유대감을 손상시키고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어머니께 의존하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여 부인의 정서적 상처는 갈수록 누적되고 부부체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며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부모-자녀 하위체계: 부부갈등이 심한 부부는 양육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육하지 못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매우 낮다.

##### 2) 위계질서의 혼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합세하여 부인을 비난하면서 부인보다 더 큰 힘이나 위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부 간에 공정한 힘의 분배나 협상은 어려운데,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가 엄마역할을 잘 못하여 손주들이 걱정된다는 명목하에 빈번하게 아들네 가족관계 및 손주 양육에 관여하여 엄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양육적 권위가 없었다. 자녀들은 잦은 음주 문제를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이 크지만, 무능력하게 보이는 엄마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화가 난 엄마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러한 관계패턴은 결국 모-자녀간의 지지적인 관계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엄격한 또는 모호한 경계선

• 핵가족 내 엄격한 경계선: 부부가 서로의 정서적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부부 간의 경계선은 친밀성도 낮고 서로 교류가 적은 엄격한 경계선을 형성하였다. 부모-자녀간의 경계선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화를 내거나 무관심하며 소통이 적은 엄격한 경계선을 갖고 있다.

• 부부-시어머니 간의 모호한 경계선: 아들은 어머니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어머니도 아들 부부관계 내에 쉽게 관여하여 며느리를 통제하고자 한다. 시어머니는 어느 선까지 자신이 관여해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없이 행동한다.

#### 4.2.3 가족 재구조화 및 종결(4-5회)

##### 1) 변화동기 격려 및 부부체계 강화

부부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다소의 한계를 갖는 다문화부부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적 요인이 발생하였고, 엄마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이들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상담사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다문화 가족 중에는 유사한 조건에서도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들의 사회적응 및 학업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재 상황은 엄마의 언어적 한계 때문이기 보다는 부부가 서로 조율이 될 때까지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아서 갈등조정 방법을 모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을 못 찾은 것이라고 재명명하였다. 또한 부부가 갈등관리가 되어야 힘을 합쳐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부부의 공통된 동기에 의해 부부가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변화를 시도하였다.

##### 2) 부부 간, 부부-시댁 간의 분명한 경계선 형성

부부로 하여금 시어머니가 방문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게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 때만 오시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부부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상의하게 하면서 부부 및 가족 간의 상호작용 빈도와 시간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 3) 부부 유대감 및 친밀감 증진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가졌던 호감과 결혼을 선택했던 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선택이 부부로 하여금 다양한 갈등상황 중에도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공유하였다 [10]. 그 때는 지금보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더 어려웠음에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고 결혼을 기대하고 결정할 수 있었음에 대해 상기시키고, 둘

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점차 조금씩 찾아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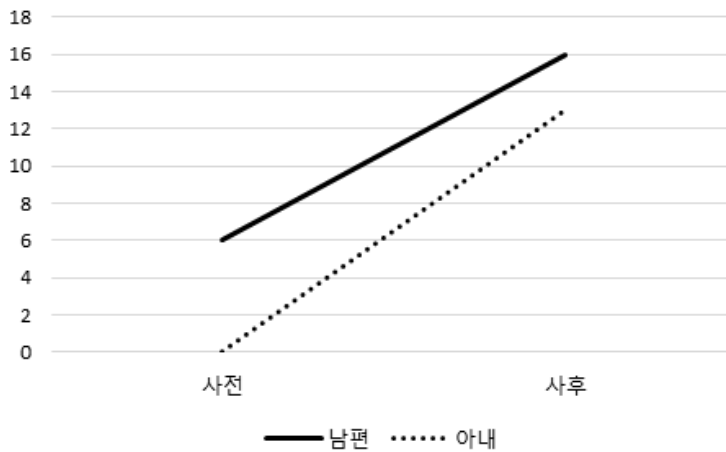
#### 4) 자녀양육의 권위회복을 위한 위계질서 수립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날에는 시부모의 역할과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되,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다가가고 필요시에는 행동 통제 및 관리를 해서 양육적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실연 기법을 통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과도하게 할 때 부모가 함께 아이들과 게임에 대한 가족규칙을 정하고 게임 외의 함께 간단한 요리하기 등의 다른 활동을 해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에 발생했던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일일이 재연하며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부부가 새로운 양육적 접근과 방법을 시도하였다.

종결 평가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 근거하여 하위체계, 경계선, 위계 등의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갈등도 해소되고 자녀들도 조금씩 부모의 말에 순응하는 빈도가 높아지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실연 기법을 통하여 부부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부부간에 갈등을 줄이면서 긍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자존감과 가족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스스로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고 가족의 강점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11].

### 5. 결과 및 결론

본 연구 질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결혼만족도 사전사후 변화

[Fig. 2] The change of marriage satisfaction

[표 2] 결혼만족도변화

[Table 2] The change of marriage satisfaction

	before	after
husband	6	16
wife	0	13

첫째,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에 기반한 부부상담을 통하여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은 재구조화 되었고 더불어 부부관계의 정서적, 의사소통적, 문제해결적 측면에서 부부적응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둘째,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에 기반한 부부상담을 통하여 다문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사후에서 나타난 결혼만족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결혼 만족도 점수는 사전 6점, 사후 16점으로 점수변화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부인 또한 사전 0점에서 사후 13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2], [표 2] 참조).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부적응 증진을 위하여 가족의 하위체계 기능강화, 위계질서 및 명확한 경계선 형성에 초점을 두는 구조적가족치료 모델을 적용한 가족상담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가족관계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가족 재구조화와 더불어 가족관계가 호전되고 부부적응 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구조적 가족치료를 적용하는 가장 큰 강점은 모국어가 달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를 갖는 다문화 부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전체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 및 가족의 구조변형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 갈등과 혼란을 감소시켜서 바람직한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갖는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은 다문화가족에서 부인들이 갖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언어적 의존도를 낮추는 치료모델로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가족치료모델이므로 향후 다문화 가족상담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H. C. Shin, J. A. Choi, H. S. Kim and J.Y. Kook, "Qualitative Study on Examining Marital Relationship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3, no. 2, May 2011, pp. 299-322.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Statistical Summary of Multicultural Population Distribution", kosis.kr,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8479](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8479), (accessed October 22, 2019).
- [3] Y. J. Kwak, *Multicultural Children's Family Counseling*, Kanghyun Publisher, 2014.
- [4] M. H. Park, "The Influence of Marriage 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and Communication on Couples' Adapta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Wonkw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1.
- [5] S. Y. M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Journal of Domestic Studies in the 2010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h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 [6] M. J. Jeong, H. J. Jeong, S. H. Lee, Y. J. Jeon, *Understanding Family*, Hakjisa, 2012.
- [7] S. Minuchin,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8] S. Minuchin, H. C. Fishman, *Family Therapy Techniqu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9] M. P. Nichols, *Family Therapy: Concept and Methods*. Gardner Press, 2011.
- [10] R. J. Sternberg, *The triangle of love: Intimacy, passion, commitment*, Basic Books, 1988.
- [11] Y. H. Shin, "Using an Empowerment Approach with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18, no.2, December 2010, pp. 61-192, doi: 10.21479/kaft.2010.18.2.161.